

금강하구 수질 개선 및 생태복원을 위한 활동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낙숫물이 댛들을 뚫는다?

우리나라 속담에 “낙숫물이 댛들을 뚫는다”는 표현이 있다. 내용인즉 작은 힘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일컫는다. 이 속담과 금강하구 수질 개선 및 생태복원을 위한 활동과 어떤 상충된 점이 있는지 이야기를 통해 풀어 가보도록 하자.

비단금(錦)자와 강강(江)자가 만나 비단결 같은 강이라고 하여 금강을 지척에 둔 지역민이라면 다들 들어본 아름다운 이름 금강!!!

전북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뜰봉샘에서 발원하여 금강하류까지 약 401km 물길을 형성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낙동강, 한강 다음으로 큰 강인 금강은 수산자원 및 생태계 보고로써 그 역할을 충분히 지역민들에게 제공해 왔다. 하지만, 금강 하류지역이 생태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 소 충남 서천군 마서면 장산로 849
기후변화실천학교내

전 화 041-956-2310

팩 스 041-956-8203

이메일 scagenda21@naver.com



적 기능을 상실하고 어민들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된 것은 1990년 하굿둑이 막히고 난 뒤부터였다. 황복어, 종어, 용어, 재첩, 참게, 실뱅장어 등 기수역을 대표하는 어류들이 사라지거나 감소했다.

1980년대에도 환경보다는 경제개발이 곧 경제발전이고 경제발전이 국가번영의 수순이던 시기이고 거기에 맞추어 환경이 등한시 되던 시절에 맞물려 공유수면 매립법을 통해 우리나라 강의 하구를 통해 치수를 하고자 진행된 금강하굿둑 개척 사업이 완공된 지 약 20여년이 흘렀다.

대한민국의 지형은 동고서저(東高西低)의 형태로 동쪽지역 높은 산들에 내린 빗물이 흘러 지대가 낮은 서쪽지역으로 가서 서해로 흘러가게 함으로 만조 때 강을 거슬러 치고 올라간 바닷물은 넓은 기수역을 만들어 다양한 어족자원의 산란처를 제공해주었으며 썰물 때에는 급히 빠져 나가는 바닷물이 토사를 먼 바다로까지 끌고 내려가 연안에 갯벌이 발달하도록 함으로써 조화로운 생태기능을 수행해 왔다.

금강 하굿둑 건설은 하구의 기수역으로서의 생태적 기능이 상

실되고 유속의 흐름을 바꾸어 토사의 퇴적을 불러 왔다. 그 결과 연안어장은 쇠락하고 하굿둑 안쪽은 부영양화로 인한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강하구의 무분별한 개발

1990년 금강하굿둑이 준공된 이후 군산 신항만 기반 조성을 위한 북측도류제(1997년)와 군산산단(2839만㎡ · 2007년), 새만금 방조제(33.9km · 401km² · 2010년), 군산LNG복합화력발전소(2009년), 207만㎡ 규모의 군산 해상매립지(군산항 내항 준설토 투기장 · 2012년), 동백대교(군장대교 3.2km · 폭 20m, 2016년 12월말 개통 예정)가 차례로 준공됐거나 준공 예정이다.

퇴적된 장항 앞바다 전경



녹조로 뒤덮인 금강하굿둑 전경



군산내항 준설토 투기장 모습

환경에 끼치는 영향

- 해수 및 생태계 교류단절로 수질오염 및 토사퇴적 원인 제공
- 조류변화와 영양염류 차단(금강하굿둑, 새만금방조제)
- 온배수 및 오폐수 배출에 따른 해양 생태계 교란

발생 문제점

- 난립된 국책시설로 환경피해 가속화와 관련 산업 쇠퇴
- 하굿둑 기수역 상실로 연안어업의 쇠락
- 연안 토사퇴적의 가속화로 항만기능 상실과 지역경제 파탄
- 갯벌기능의 상실로 어패류 종의 완전 소멸
- 조류변화와 영양염류 차단으로 인근 양식 산업 악영향
- 수질오염의 가속화는 농업용수 공급 및 생태관광에 한계
- 하구호 토사퇴적 증가는 담수능력 저하로 용수확보와 안전 문제 초래

금강하굿둑의 완공과 담수호 금강호로 인해 장항-군산 간 교통이 편리해졌으며 농경지가 늘어나고 일부지역은 침수피해가

금강하굿둑에 설치된 국책시설

시설명	준공시기	주 목적
금강하굿둑	1990	충남·전북에 농·공업용수 공급
북측도류제(북, 남방파제)	1997	군산 신항만 기반조성용
군산LNG복합화력발전소	2009	전력생산(700MW급 1기)
군산해상매립지	2012	207만㎡, 군산항 내항 준설토투기장
새만금방조제	2010	길이 33.9km(세계 최장), 면적 401km ²
군산국가산단	2007	군산시 소룡동 일원 갯벌매립 28,390천㎡
동백대교(군장대교)	2016, 12.	연장 3,185km, 폭 20m(4차선)

줄어들었다. 또한 군산 등 공업지역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장점도 있지만 생태적 기능을 상실한 금강하구는 수산자원의 고갈을 불러와 수산업이 번성했던 장항은 차츰 쇠락해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서천군 전체의 인구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0여년이 지난 현재 금강하굿둑이 불러일으킨 환경 재앙이 가시화 되고 있다. 금강호의 수질이 악화돼 향후 더 이상 농·공업용수로 쓰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고, 하굿둑 아래로는 토사가 쌓여 항구기능이 쇠퇴하고 수심이 얕아져 장항읍 저지대에서는 장마철만 되면 침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금강하굿둑 조성이후 문제는 수산업의 쇠락, 장항항 토사 퇴적, 금강 물의 수질악화, 서천연안 어장 황폐화 등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이러한 시기에 금강하굿둑을 개선하여 금강호 수면과 해수면의 수위 차를 이용한 해수 유입을 통한 기수역을 되살리고 금강하구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함을 통해 금강호를 살리는 데 있다.

푸른서천21추진협의회에서는 서천군과 함께 금강하굿둑을 개

현황도



선하여 이러한 환경재앙이 본격화되기 전에 대비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서천군내 95개 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금강해수유통추진단을 결성과 함께 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업내용

금강 해수유통 희망 토론회

먼저, 2009년 “금강 하굿둑 이대로 좋은가?”라는 금강하굿둑 구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금강하구 생태문화를 중심으로 교육 및 안내자 양성을 위한 서천생태문화학교를 시작하였으며 2011년에는 서천군민이 금강에 대한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철새들의 중요한 서식지인 금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음악과 함께 느끼고 교류하는 금강사랑 열린 음악회를 진행하였으며 2012년에는 네덜란드, 일본에서 온 전문가와 낙동강, 영산강, 금강 3대강 해수유통 추진협의회와 유역별 주민, 환경단체, 서천군민이 참여한 하굿둑 해수유통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러한 토대를 가지고 2013년도부터 본격적인 금강하구수질 개선 및 생태복원을 위한 거버넌스 활동을 진행했다.

먼저 “금강하구 해수유통 200만 충남도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충남도민 전체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을 통해 충남도내 각 환경단체와의 연대와 더불어 광역 단위의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 정책에 해수유통에 대한 건의 및 입안을 목표로 본 사업을 서천군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푸른서천21추진협의회에서는 지역 95개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금강해수유통추진단을 결성하고 결성된 추진단 상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주민들



패널과 참석한 주민들의 질의 답변 모습



금강해수유통추진단 발대식 참석한 주요 인사들



해수유통 추진단 발대식 장면

임대표를 본 협의회에 대표회장이 맡고 집행위원장은 사무국장이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서천군에서는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전체 연대를 통한 금강정책구상력 강화를 통해 금강하굿둑 등의 국책시설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강의 문제점들이 서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도민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 전파에 앞장서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첫 번째 진행된 사업으로 ‘금강 해수유통 희망의 가능성을 열며’라는 주제를 가지고 금강 해수유통 희망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푸른서천21추진협의회가 주최하고 금강해수유통추진단이 주관하였으며 서천군이 후원한 본 토론회는 엄청난 토사퇴적과 수질악화로 썩어가는 금강하구를 살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2013년 9월 4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서천군 문예의 전당 소강당에서 지역민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푸른서천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된 본 토론회는 먼저 금강 해수유통을 연구해 온 지오시스템리서치의 김태인 박사가 “금강 부분 해수유통 수치모델링”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여 다양한 해수유통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염분 확산 거리 등에 제시했으며 두 번째 발표자로는 전남대 전승수 교수가 “금강호의 기능 확대를 통한 하구역 생태환경 복원 및 유역발전추진”이라는 주제로 해수유통의 당위성 및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는 후 대전대학교 허재영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과 함께 질문 및 토론으로 금강 해수유통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금강도보순례단

“금강해수유통 희망의 가능성을 열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

행된 토론회를 바탕으로 구성된 여론과 함께 금강해수유통 촉구와 금강하굿둑 등의 국책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금강의 문제들을 알리기 위해 금강도보순례단을 꾸리기로 결정하였으며 푸른서천21추진협의회가 주최하고 금강해수유통추진단이 주관하는 서천~익산~강경~백제보까지 총 162리 65km 구간을 2박3일 일정으로 도보순례단을 모집하는 공고문을 충남도와 전북도까지 금강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참가한 분들 면면히 살펴보면 익산, 군산, 부여, 보령, 공주 등의 지역민과 함께 서천에서는 군수님이 직접 참가하셨으며 또한 최고령 참가자로 장항읍 장암리에 거주하시는 80세 박양수 어르신까지 총 276명이 2박 3일은 아니더라도 하루라도 도보순례단과 함께 비단결 같은 금강변을 같이 걸으면서 금강하구 수질개선과 함께 생태복원에 대한 공감하는 시간을 함께 하였다. 특히, 본 행사를 주최한 푸른서천21추진협의회에서는 금강변을 무작정 걷는 것이 아니라 구간 구간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0월 10일 회의를 통해 기존 금강해수유통 추진협의회를 추진단으로 격상 및 대도민 홍보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구성된 금강해수유통추진단은 서천군 95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공동대표단으로 푸른서천21, 기독교, 천주교, 불교계, 농민회, 여성단체 대표등 10개 단체로 구성하고 상임대표를 푸른서천21 대표회장이, 집행위원장은 사무국장을 선출하였다. 이렇게 선출된 본 집행부 중심으로 10월21일 금강해수유통추진단 발대식과 금강도보순례 출정식을 금강의 랜드마크인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 야외 선상부에서 진행하였다.

발대식에는 금강해수유통추진단 95개 참여단체 회원들과 충남도 정무부지사와 서천군수, 군의회위원장, 도의원, 군의원과 전국에서 모집된 금강도보순례단, 푸른서천21추진협의회 김우수 사무국장, 푸른예산21추진협의회 김영우 사무국장등 지역의제

활동가 등을 포함한 지역민들 약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하였다.

푸른서천21추진협의회 홍성민 사무국장의 “금강은 흘러야 한다”라는 힘찬 구호와 함께 시작된 발대식은 해수유통을 염원하는 각 남녀대표 한명이 금강해수유통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낭독된 결의문을 충남도 정무부지사께 전달함으로써 발대식을 마무리하고 바로 2박3일 일정의 금강도보순례일정을 진행하였다. 단순히 금강변을 걷는 것이 아니라 금강변을 걸으면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금강의 역사, 문화, 생태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을 구간구간마다 진행하였다. 그래서 참가자들이 왜 우리가 이 금강변을 걸으면서 해수유통을 통한 금강하구의 생태복원을 염원하는지 소통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일차 신성리 갈대밭에서 공주대 환경교육학과 정민걸 교수를 초빙하여 금강생태이야기를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프로그램에 참가한 분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서천군조류생태전시관에서 출발한지 신성리 갈대밭까지 13.5 km를 걸었고 다시 한번 참가자들의 “금강은 흘러야 한다”는 힘찬 구호와 함께 다음 목적지 옹포대교 나루터까지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서천군에서는 도보순례단이 용변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중간 중간 간이 화장실을 설치 및 교통정리, 응급환자 발생 시 후송도 해주었으며 주민기업인 공정여행사 너나 드리는 틈틈이 새참거리로 도보순례단을 반겨주는 서로 역할분담이 훌륭하게 나누어진 민·관, 기업이 함께하는 도보순례 여정이라 생각된다. 1일차 여정 숙소로 전북 익산 성당포구에 위치한 금강체험관을 선정하였다. 금강을 사이에 두고 도계는 다르지만 금강해수유통을 통한 금강생태복원은 충남도만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전북도에서도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성당포구 주민들을 만나고 마을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금

강체험관을 택한 목적이다. 성당포구 주민일동 이름으로 “금강도보순례단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 문구를 보면서 가슴 뭉클함이 오늘 하루의 피곤함을 잊게 만들었다.

이곳에서 여정을 풀고 대전대학교 허재영 교수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특별하다. 그 이유는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유만영 익산시 그린리더협의회 대표, 김양용 익산의제21 사무국장을 패널로 초빙하여 나소열 서천군수, 양금봉 서천군의회 의원, 푸른서천21 유승광 부회장, 푸른충남21 김병빈 사무처장을 패널로 하여 금강희망찾기 세미나를 전북측 환경단체와 함께 해수유통에 대한 논의를 처음으로 하였으며 이에 대해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해수유통에 대해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이것으로 1일차 일정을 마무리했다.

2일차 금강도보순례단 일정은 아침 8시에 출발하여 강경시내를 통과하면서 홍보 전단지 배포와 함께 강경역에서 맑고 푸른논산21추진협의회와 함께 논산시 시민들에게 해수유통의 당위성 설명 및 해수유통축구 서명운동을 병행하면서 진행하는 일정으로 저녁때까지 숙소인 부여유스호스텔까지 약 80리길(32km)를 걷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3일차 금강도보순례단 일정은 부여유스호스텔에서 출발하여 부여시내를 통과하면서 백제보까지 약 20리길(8km)일정으로 마무리한다. ‘유시유종(有始有終)’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시작할 때부터 끝을 맺을 때까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말처럼 금강도보순례단의 취지에 맞게 부여에서 도보순례단을 환영을 해준 두레패와 부여 부군수와 함께 부여시내를 통과하면서 해수유통 홍보 활동과 함께 목적지인 백제보까지 당도하여 그곳에서 도보순례완주 인증서와 함께 순례단 해단식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출발전 금강희망찾기 도보순례단 단체사진



금강변을 걷고 있는 도보순례단 전경



신성리갈대밭에서 토크 콘서트 장면



전북지역 환경단체와 함께하는 세미나 장면



익산성당포구 금강체험관에 걸린 환영 현수막



해수유통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모습

2박 3일간의 도보순례 참석현황을 간단히 설명하겠다. 10월 21일 첫째 날에는 전 구간 참석자 29명을 포함해서 구간별 일일 참석자 82명, 그리고 지원스텝 요원 17명 등 총 128명이 참석하였다. 10월 22일 둘째 날은 가장 길고 힘든 코스였지만 전 구간 참석자 29명, 구간별 일일 참석자 28명 그리고 지원스텝 요원 17명 등 총 74명이 참석하였다. 마지막 날인 10월 23일은 전 구간 참석자 29명, 구간별 일일 참석자 50명 부여군 개발위원회 참석자 5명 그리고 지원스텝 요원 17명 등 총 94명이 참석하였다. 그래서 3일간 참석자 누계는 총 276명이 참석을 했으며 프로그램 참가자중 최고령 80세 박양수 어르신(작년에 작고하심)등 29명이 65km완주인증서를 전달받았다.

해수유통 촉구 서명운동

금강하굿둑 건설로 인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하굿둑 해수유통을 적극 홍보하고 정부 정책에 건의·반영하기 위해서 충남 15개 시·군을 방문하여 서명운동 전개활동을 시작하였다. 서천군은 충남 14개 시·군 대상으로 해수유통 홍보활동을 병행하면서 서명을 받았으며, 푸른서천21추진협의회에서는 관내축제, 의제행사시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2013년 강원도 의제대회에서 해수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더불어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지역에서 열리는 평생학습축제, 겨울철 새여행 축제 등 관내축제에서 적극적인 서명활동을 전개함으로 총 156,101명이 서명에 동참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푸른서천21대표회장과 사무국장은 성명서와 함께 156,101명 염원이 담긴 금강해수유통촉구 서명부를 12월 12일 국무조정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직접 전달하였다.

2014년도부터는 금강하굿둑을 둘러싸고 있는 충남도와 전북도 광역단체와 서천군, 군산시가 해수유통에 대한 의견차가 좁

혀지지 않고 있어 민선6기 새로 선출되신 서천군수께서 해수유통에 대한 궁극적 유지를 하면서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사업을 통한 금강하구의 생태복원을 이끌어 내는 단계별 추진전략으로 선회한 정책방향 맞춰 푸른서천21추진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금강하구수질개선 및 생태복원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푸른서천21추진협의회를 통해 만들어진 서천생태문화학교에서는 지속적인 금강변 생태모니터링을 전개하였다. 또한 사무국에서는 2008년부터 진행해온 지역민 대상 생태연안탐방을 금강변 생태복원에 맞춰 진행했다. 또한 2014년 금강유역환경포럼 세종·충남지역포럼 개최를 통해 “금강 생태복원을 통한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 회복 방안”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였다. 상생의 금강을 만들기 위해 금강의 생태와 문화가 지역 공동

금강해수유통 충남도민 희망모으기
15만 명 서명운동 추진현황

연번	시군명	서명 수	비고
1	천안시	11,851	
2	공주시	10,508	
3	보령시	11,513	
4	아산시	8,762	
5	서산시	10,423	
6	논산시	11,278	
7	계룡시	6,649	
8	당진시	7,172	
9	금산군	6,797	
10	부여군	8,358	
11	서천군	30,187	
12	청양군	3,565	
13	홍성군	10,306	
14	예산군	7,708	
15	태안군	11,024	
	총 서명 수	156,101	

체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금강수계특별법의 개선내용 제안에 목적을 두었으며 금강유역 환경포럼 세종충남지역위원회과 주최하고 금강유역환경회의와 푸른서천21추진협의회가 주관하였으며 금강유역환경청, 뉴스서천, 뉴스스토리가 후원하는 민·관·기업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2015년에는 금강하구수질개선 및 생태복원활동으로는 금강변 생태계 교란종 가시박제거 사업을 전개하였다. 금강하굿둑으로 인해 막혀 있는 금강생태계에 고유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 식물인 가시박이 창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관리대책추진을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금강하구 생태계 조성함과 동시에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고유토착식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사업평가와 과제

금강하굿둑으로 인한 금강수질의 문제점들이 서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 전파와 함께 수질 개선을 위한 전제 조건은 강물은 언제든지 흘러야한다는 시사점과 함께 금강하구의 이,치수 기능 저하에 따른 문제점 제기를 통해 사회 이슈화 시킨 기대효과를 거두었으며 그 결과 충남도에서는 2015년 12월 7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강의 미래를 보다 토론회를 통해 금강비전 실행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자리에서 홍수와 가뭄 걱정이 없는 안전한 금강을 위해 금강하굿둑, 금강보 재평가 및 운영체계 개선이 들어가는 치수부문에 들어갔으며 또한 참계와 종어가 돌아오는 건강한 금강을

위해 하구중심의 순응형 통합유역관리, 지역특성을 반영한 생태하천 복원, 금강보와 연계한 금강하구 생태복원이 반영되었으며 생태부문에서는 조류 서식지 조성, 멸종위기 어류 서식지 복원 등이 제시가 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핵심관리 지역 오염 개선, 수변지역 보전, 복원, 이용사업, 하굿둑 배수갑문 증설 및 어도 확장 사업·해수유통을 위한 기수역 조성 등이 포함된 사업비 2,555억 2,000만원 내놨다.

또한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는 금강하구역 종합관리 시스템개발연구 용역을 통해 금강하굿둑 구조개선의 근거를 위한 시스템 개발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역은 2014년도부터 2019년까지 약 5년간 진행되며 100억 원 비용이 투입된다.

위 두 가지 사업 채택을 위해 푸른서천21추진협의회에서는 2013년 진행된 충남도 금강비전21 서천군 간사로 정책결정에 참여하였으며 해양수산부에 만든 금강하구역 정책협의회는 중앙부처와 충남도 전북도, 군산시, 서천군, 민간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으로써 이곳에 정책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토론과 논의를 통해 금강하굿둑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을 위한 활동을 통해 중앙부처 정책입안에 즐기차게 제안하고 있다.

예전에 전북도에서는 해수유통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지만 2015년 7월 9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린 새만금 정책토론회에서 해수유통이 새만금 수질관리의 현실적 대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을 박덕배(사)한반도수산포럼 회장은 해수유통이 새만금 수질 개선의 열쇠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등 해수유통에 대한 단어조차 금기시하던 전북에서도 해수유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화호도 수질이 7, 8급까지 악화된 대표적인 수질악화지역이다. 하지만 부분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이 개선과 함께 멸종위기종 되살아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새로운 휴식처를 제공하고



논산시와 논산의제21 위원과 함께한 단체 사진



금강도보순례단 해단식 단체 사진



2박 3일 원주한 최고령 참가자 박양수 어른(80세)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금강하구도 해수유통이 필요하고 인접한 새만금도 수질개선 방법은 해수유통뿐이라고 판단된다.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에 대한 논의가 서천군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충청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에 폭넓게 호의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으며 충청도에서 실례로 보령호와 서산 고파도 폐염전부지를 연안 하구 복원 사업지구 선정하고 하얏트 국내적으로 활발히 연안하구 복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다른 한쪽인 전북도와 군산시는 여전히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에 대해 절대불가의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금강하구역 정책협의회에서 참석한 군산측 관계자는 금강하구 생태복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민선6기 새로 선출되신 서천군수께서 서천군과 군산시 행정협의회 부활을 통해 대화 채널을 가동하면서

뉴스서천보도자료

금강변 걸으며 생태환경 중요성 일깨운다

푸른서천21, 생태문화 탐방 행사

2014년 10월 27일 (월) 18:31:24

허정균 기자 <juhjk@newssc.co.kr>



▲ 서천연안 생태문화 탐방에 참여한 사람들

푸른서천21추진협의회(대표회장 송남표)는 지난 18일(토) 서천연안 생태문화 탐방 행사를 가졌다. 푸른서천21 사회문화교육본과위원회가 주관한 이 행사는 '금강생태복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천지역 금강변을 걸으면서 금강에 대한 소통과 공감을 하고자 푸른서천21이 기획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20여 명의 지역민들과 함께 황토사학자 유승광 박사, 생태문화학교 김익수 상임이사 등이 참여해 김인전공원에서부터 한산 신성리 갈대밭까지 걸으면서 금강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특히, 이번 행사에 멀리 홍콩에서 온 3명의 참가자가 함께하기도 했다.

푸른서천21추진협의회는 2008년부터 매년 서천연안 생태문화역사탐방을 진행해 왔다.

매년 금강하구에서 진행된 겨울철새여행을 2015년도부터는 군산시와 함께 공동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금강하굿둑에서 양 지자체 민간·행정·기업 등이 참여하는 금강하구역 대청소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화해분위기로 바뀐에 따라 금강하구 수질 개선 및 생태복원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서두에서 낙숫물이 땀돌을 뚫을 수 있을까? 의문 부호로 시작하였지만 십시일반(十匙一飯)이라는 한자성어처럼 여럿이 힘을 합치면 한 사람 돕는 것이 쉬운 것처럼 언젠가는 서천군과 군산시, 충남도와 전북도와 함께 손을 잡고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싶다.

비단결 같다고 해서 붙여진 그 이름 금강을 우리 후손들에게 지속가능한 물을 물려 줄 수 있도록 금강은 흘러야 한다.

서천신문 보도자료

푸른서천21, 토종생태계 보호 나서
금강변 찾아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 제거 활동
[2015-09-21 오전 10:53:00]



서천군 푸른서천21추진협의회(대표 구권환)와 (사)서천생태문화학교(회장 나홍열), 서천군의회 조동준 의원 등 20여명은 14일 금강하굿둑 주변에서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 제거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가시박 제거 활동은 금강물줄기와 함께 갈대로 유명한 서천 금강변 주변이 가시박으로 인해 고유식물생태계를 위협하는 가시박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90년대 호박의 연작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려진 가시박은 하루 30cm 최대 12m까지 자라는 왕성한 생장력으로 토종식물의 서식공간을 잠식해 생물환경을 차단하고, 특유의 제초성분을 배출해 고사에 이르게 하는 등 고유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식물계의 황소개구리로 불리고 있다.

푸른서천21 홍성민 사무국장은 "내년에도 지역의 유관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가시박 뿐만 아니라 한살덩쿨도 함께 제거해 금강하구의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시박은 환경부에서는 2009년도에 생태교란식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9월이 제거 적기로 수작업을 통해 직접 제거하는 것 외는 다양한 퇴치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서천신문 김정기기자